

# 기초간호학만족도가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 경로에 관한 융합 연구

임정혜

창원문성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A Convergence Study about the Effect Path of Satisfaction with Biological nursing science on Clinical competence

Jung-hye Lim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angwon Moonsu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기초간호학만족도, 전공간호학만족도, 비판적사고성향과 전공만족도 및 임상수행능력 간의 인관관계와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융합연구이다. 3개 대학 간호학과 학생 203명을 대상으로, 2018년 5월에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PASW 18.0, AMO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기초간호학만족도가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 경로모형은 적합하였다( $\chi^2/DF=1.093$ ,  $GFI=.992$ ,  $AGFI=.968$ ,  $RMSEA=.021$ ,  $CFI=.998$ ,  $NFI=.983$ ). 기초간호학만족도는 전공간호학만족도( $\beta=.345$ ), 전공간호학만족도는 비판적사고성향( $\beta=.272$ )과 전공만족도( $\beta=.277$ ), 비판적사고성향은 전공만족도( $\beta=.365$ )와 임상수행능력( $\beta=.582$ ), 전공만족도는 임상수행능력( $\beta=.228$ )에 직접효과가 있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기초간호학만족도가 높으면 전공간호학만족도가 높아지고, 이는 비판적사고성향과 전공만족도를 높이며, 결국에는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개발과 적용으로 기초간호학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중재마련이 필요하다.

주제어 : 기초간호학, 전공간호학, 비판적사고성향,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

Abstract This study is convergence study about the effect path of relationship among satisfaction with biological nursing science, satisfaction with major nursing subjec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atisfaction with major and clinical competence. The survey was performed on 203 nursing students in three college. Data was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s in May 2018 and analysed with PASW 18.0 and AMOS 18.0. Model fit indices were in good agreement with recommended level( $\chi^2/DF=1.093$ ,  $GFI=.992$ ,  $AGFI=.968$ ,  $RMSEA=.021$ ,  $CFI=.998$ ,  $NFI=.983$ ). Base on the path model, satisfaction with biological nursing science showed a direct effect on satisfaction with major nursing subject( $\beta=.345$ ), satisfaction with major nursing subject showed a direct effect both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beta=.272$ ) and satisfaction with major( $\beta=.277$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howed a direct effect both on satisfaction with major( $\beta=.365$ ) and clinical competence( $\beta=.582$ ), satisfaction with major a direct effect on clinical competence( $\beta=.228$ ). In conclusion the biological nursing science satisfaction has eventually improved clinical compete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various teaching methods that can increase satisfaction with biological nursing science.

Key Words : Biological nursing science, Major nursing subjec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atisfaction with major, Clinical competence

\*Corresponding Author : Jung-hye Lim(blueljh22@naver.com)

Received May 9, 2019  
Accepted July 20, 2019

Revised June 19, 2019  
Published July 28, 2019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대학생들은 간호학과 입학 후 인간의 인체에 대한 구조와 기능 및 질병에 대한 전반적 지식습득을 위해 기초간호학을 학습하게 되면서 간호에 대해 배우게 된다. 한국기초간호학회[1]에서는 인체구조와 기능, 병태생리, 병태생리학, 약물의 기전과 효과 교과목을 기초간호학으로 정의하고 있고, 기초간호학은 질병의 병태생리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치료의 방향을 이해하도록 하는 간호학의 기초가 되는 필수 교과목이다[2].

임상에서 간호사는 다양한 환자를 만나면서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사정하고, 증상을 관리하며, 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활동을 수행한다. 간호중재 과정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신체적 측면의 지식인 기초간호학으로[3], 임상실무의 근거기반이 되는 필수적인 학문이다. 그러나 간호대학생들은 의과대학생보다 적은 시간 내 기초간호학을 학습해야 되고, 또한 책임교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주로 외부강사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기초간호학을 어려워하며 흥미와 관심도 적은 편이다. 또한 간호학 전공 선택 이유에 있어서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간호학 전공을 선택하기 보다는 취업률이 높다는 이유로 선택하는 학생이 더 많고[4],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생명과학 관련 과목을 학습하지 않은 학생들의 입학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5], 더욱이 기초간호학에 해당하는 교과목들이 기초의학과목에 해당하며, 의학과의 차별성을 갖기보다는 대부분 내용을 축약한 형태로 학습하고 있기에[5], 학생들이 입학 후 바로 기초간호학을 접하고 학습하게 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교수들도 제한된 학점 내에서 학생들을 이해시키고 가르쳐야 하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습득해야 하는 기초간호학 학습목표를 제시하는 학습성과 기반의 강의계획서 개발 등의 노력들이 있었다[5]. 그렇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의 추세로 간호학과 신입생이 계속 늘어난다면, 이러한 어려움들은 향후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초간호학에 대한 체계적 교육 방안이 필요하다.

간호학과 입학 전 생물학, 화학 등 과학관련 과목을 학습한 학생들의 기초간호학 성적이 학습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던 연구 결과로 미루어[6], 전공간호학

의 기반이 되는 기초간호학에 대한 만족이 전공간호학에 대한 만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전공간호학이 성인, 아동, 여성 등 간호대상별로 간호학을 분류하여 학습하고 있으나, 이 모든 전공간호학의 근간은 기초간호학이기 때문이다. 기초간호학에 대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이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대상자의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간호를 학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로 기초간호학만족이 전공간호학만족으로 연결되는 것인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전공간호학은 기초간호학을 근거로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논리적 사고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비판적사고의 확립을 목표로 한다. 비판적사고란 자신의 생각을 좀 더 분명하게 하도록 하고 관련성 있는 부분에 대해 일관성 있는 사고를 하는 것으로[7], 문제의 과학적 근거를 찾아내고, 이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고 실무에 적용하여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4]. 기초간호학을 통해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기전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습득하고, 전공간호학을 통해 질병중심의 문제해결을 위한 간호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비판적사고성향이 함양되도록 끈임 없이 훈련하는 것으로, 이는 단기간에 습득되어지지 않으며 전체 간호교육과정 내에서 지속적으로 훈련되어야 한다. 비판적사고가 임상실습의 간호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은 이미 밝혀져있다[8]. 학점이 높은 학생들이 비판적사고성향도 높았던 결과[9]로 미루어 기초간호학과 전공간호학에 대한 만족이 높으면 비판적사고성향도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에 대한 많은 고민보다는 높은 취업률 때문에 간호학을 선택하고, 이미 결정되어진 진로로 인해 타 전공학생들에 비해 전공 및 진로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상태로 지내다가 졸업을 하게 되는데[4], 이것이 신규간호사의 이직에도 영향을 미치고, 간호사 부족이라는 사회적 문제와도 연관이 있게 된다[4]. 따라서 간호대학생에게 전공만족은 중요한 요인이다. 전공만족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의 전공을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이라고 정의한다[10]. 간호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에서 교과에 대한 만족은 낮으나, 반면에 중요도는 높았던 결과로 미루어[4], 전공간호학에 대한 만족을 향상시키면 전공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측되어 진다.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에 비판적사고성향, 전공만족도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8], 전공만족도를 높이면 향상된 임상수행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간호교육의 목적은 이론과 실습교육을 통하여 질적 간호를 제공하는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하는데 있으므로, 간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임상수행능력의 개발은 간호교육에서 매우 중요하다. 간호학은 실천학문으로, 이론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은 임상에서 대상자의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해결을 위한 단서로 충분히 활용되어야 한다. 간호 실무의 본질이 생의학적 지식에 의해 뒷받침되는 중재들을 필요로 하므로, 따라서 기초간호학 지식이 없는 전문직간호는 존재할 수 없다[6]. 그러나 대부분의 간호대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교육을 임상실습 시 문제해결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한다. 이러한 교육환경에서 간호대학생들은 많은 학습량과 국가고시 등의 과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간호학에 대한 흥미저하와 진로정체성에 혼돈을 가져오게 된다[4].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간호교육과정 구성에 따른 교육이 간호대학생들의 기초간호학에 대한 만족을 높혀 전공간호학 만족도를 높이고 비판적사고를 함양하며, 간호학 교과를 포함한 간호학 전반에 대한 전공만족도로 이어져 임상수행능력까지 함양시킬 수 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임상수행능력에 있어 전공만족도, 비판적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등[8] 개인의 내면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있었으나, 실제적으로 간호교육과정의 시작인 기초간호학 이론교육에서부터 임상실습까지 이어지는 교육과정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간호교육인증평가 3주기는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해 기초간호학만족도가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점검하고, 기초간호학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기초간호학만족과 전공간호학만족,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가. 간호대학생의 기초간호학만족도, 전공간호학만족도, 비판적사고성향,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정도를 파악한다.
- 나. 기초간호학만족도, 전공간호학만족도, 비판적사고성향,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경로모형을 검증한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편의 추출한 국내 G지역 대학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간호학만족도, 전공간호학만족도, 비판적사고,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문헌고찰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기초간호학만족이 전공간호학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비판적사고와 전공만족도를 향상시켜,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가설적 경로모형을 Fig. 1과 같이 구축하고, 모형의 적합도와 가설을 검증하는 경로분석 연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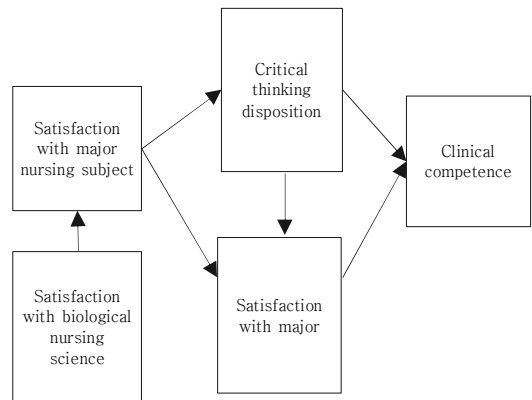


Fig. 1. Theoretical framework

### 2.2 자료 수집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8년 5월, G지역 3개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추출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언제든지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연구목적과 설문 내용을 이해하고 참여를 허락한 자로서,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후 시행하였다.

구조방정식의 경우 표본의 크기가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견해에 근거하여[11], 총 220부를 표집대상으로 수집하였고,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203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 2.3 연구 도구

#### 2.3.1 기초간호학만족도

한국기초간호학회에서 기초간호학으로 정의한 인체구조와 기능, 병원미생물학, 병태생리학, 약리학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2.3.2 전공간호학만족도

본 연구는 전공간호학 교과목 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과의 관련성을 보기 위한 것이므로 한국간호평가원에서 제시한 전공간호학 중 임상실습을 시행하고 있는 성인간호학, 여성건강간호학, 아동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정신건강간호학에 대한 만족도를 5점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2.3.3 비판적사고성향

총 27개 문항으로 건진한 회의성, 객관성, 체계성, 신중성, 지적열정, 지적공정성, 자신감 7개 요인으로 구성된 Yoon[12]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5점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사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하며, Yoon[12]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  = .84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12 이었다.

### 2.3.4 전공만족도

Illinois 대학에서 개발[13]하고, Kim과 Lee[14]가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8개 문항으로 일반만족, 인식만족, 교과만족, 관계만족 4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과 Lee[14]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  = .91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16 이었다.

### 2.3.5 임상수행능력

Lee 등[15]이 개발하고 Choi[16]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45문항으로 간호과정, 간호기술, 교육·협력관계, 대인관계·의사소통, 전문직 발전 5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 등[15]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  = .96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55 이었다.

## 2.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PASW 18.0, AMO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각 변수의 측정치는 기술통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각 변수의 관계는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절대적합지수  $\chi^2$ , Normed  $\chi^2$ (CMIN/df), GFI,

AGFI, RMSEA, 증분적합지수 CFI, NFI로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였고, 간접효과와 총 효과의 유의성은 Bootstrapping으로 검증하였다.

## 3. 연구 결과

### 3.1 대상자의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21~24세가 141명(69.5%), 여학생이 173명(85.2%)이었다. 3학년이 99명(48.8%), 종교는 없음이 136명(67.0%), 고등학교는 이과 전공이 92명(45.3%)로 많았으며, 일반전형 입학이 168명(82.8%)이었다. 전공선택 이유는 높은 취업률 81명(40.3%), 적성에 맞춰서가 71명(35.3%)의 순으로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03)

| Characteristics    | Categories           | N(%)      |
|--------------------|----------------------|-----------|
| Age(yr)            | ≤20                  | 41(20.2)  |
|                    | 21~24                | 141(69.5) |
|                    | ≥25                  | 21(10.3)  |
| Sex                | Male                 | 30(14.8)  |
|                    | Female               | 173(85.2) |
| Grade              | 2nd                  | 45(22.2)  |
|                    | 3rd                  | 99(48.8)  |
|                    | 4th                  | 59(29.1)  |
| Religion           | Yes                  | 67(33.0)  |
|                    | No                   | 136(67.0) |
| High school majors | Humanities           | 77(37.9)  |
|                    | Science              | 92(45.3)  |
|                    | Medical service      | 30(14.8)  |
|                    | Others               | 4( 2.0)   |
| Entrance type      | General              | 168(82.8) |
|                    | Special              | 35(17.2)  |
| Motive of entrance | Aptitude             | 71(35.3)  |
|                    | High employment rate | 81(40.3)  |
|                    | Recommendation       | 40(19.9)  |
|                    | High school grade    | 5( 2.5)   |
|                    | Others               | 4( 2.0)   |

### 3.2 기초간호학만족도, 전공간호학만족도, 비판적사고성향,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 정도

Table 2와 같이 간호대학생의 기초간호학만족도는 3.88점, 전공간호학만족도는 4.05점이었다. 비판적사고성향은 3.60점으로 객관성 3.92점, 지적공정성 3.89점으

로 높았고, 자신감 3.59점, 지적열정 3.53점, 건전한 회의성 3.52점, 체계성 3.43점이었으며 신중성 3.38점으로 낮았다. 전공만족도는 3.75점으로 인식만족이 4.13점으로 높았고, 일반만족 3.70점, 관계만족 3.69점이었으며 교과만족 3.32점으로 낮았다. 임상수행능력은 3.60점으로 간호과정 3.58점, 간호기술 3.58점, 교육·협력관계 3.57점, 대인관계·의사소통 3.68점, 전문직 발전 3.59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Satisfaction with biological nursing science, Satisfaction with major nursing subjec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atisfaction with major, Clinical competence (N=203)

| Variables                                    | Mean(SD)  | Min-Max   |
|--|-----------|-----------|
| Satisfaction with biological nursing science | 3.88(.77) | 2.00-5.00 |
| Satisfaction with major nursing subject      | 4.05(.62) | 2.00-5.00 |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 3.60(.46) | 2.52-4.81 |
| Sound skepticism                             | 3.52(.65) | 1.25-5.00 |
| Objectivity                                  | 3.92(.59) | 2.00-5.00 |
| Systemicity                                  | 3.43(.68) | 2.00-5.00 |
| Discretion                                   | 3.38(.62) | 2.00-5.00 |
| Intellectual passion/Curiosity               | 3.53(.62) | 1.60-5.00 |
| Intellectual fairness                        | 3.89(.56) | 1.75-5.00 |
| Self-confidence                              | 3.59(.60) | 2.25-5.00 |
| Satisfaction with major                      | 3.75(.55) | 2.28-5.00 |
| General satisfaction                         | 3.70(.72) | 1.14-5.00 |
| Recognition satisfaction                     | 4.13(.70) | 1.80-5.00 |
| Course satisfaction                          | 3.32(.71) | 1.33-5.00 |
| Relation satisfaction                        | 3.69(.73) | 1.00-5.00 |
| Clinical competence                          | 3.60(.48) | 2.02-5.00 |
| Nursing process                              | 3.58(.50) | 2.45-5.00 |
| Nursing skill                                | 3.58(.57) | 1.91-5.00 |
| Teaching/Coordinating                        | 3.57(.57) | 1.75-5.00 |
| Interpersonal relationship/Communication     | 3.68(.58) | 1.83-5.00 |
| Professional development                     | 3.59(.58) | 1.67-5.00 |

3.3 기초간호학만족도, 전공간호학만족도, 비판적사고성향,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 상관관계

Table 3와 같이 기초간호학만족도가 전공간호학만족도( $r=.495, p<.001$ ), 비판적사고성향( $r=.216, p=.002$ ), 전공만족도( $r=.144, p=.042$ ), 임상수행능력( $r=.230, p=.0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전공간호학만족도는 비판적사고성향( $r=.298, p<.001$ ), 전공만족도( $r=.400, p<.001$ ), 임상수행능력( $r=.264, p<.0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비판적사고성향은 전공만족도( $r=.440, p<.001$ ), 임상수행능력( $r=.682, p<.001$ )과 전공만족도는 임상수행능력( $r=.484, p<.0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Table 3. Correlations of variables

| Variables                                      | 1            | 2            | 3            | 4            | 5 |
|--|--------------|--------------|--------------|--------------|---|
| 1.Satisfaction with biological nursing science | 1            |              |              |              |   |
| 2.Satisfaction with major nursing subject      | .495 (<.001) | 1            |              |              |   |
| 3.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 .216 (.002)  | .298 (<.001) | 1            |              |   |
| 4.Satisfaction with major                      | .144 (.042)  | .400 (<.001) | .440 (<.001) | 1            |   |
| 5.Clinical competence                          | .230 (.001)  | .264 (<.001) | .682 (<.001) | .484 (<.001) | 1 |

3.4 모형의 적합도

Table 4는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로 절대적합지수들이  $\chi^2/df=1.093$ , GFI=.992, AGFI=.968, RMSEA=.021로 나타났고, 충분적합지수 CFI=.998, NFI=.983으로 나타나 모든 적합지수가 권장수준을 충족하여 경로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Goodness of Model

| Fit Index      | $\chi^2/DF$ | GFI        | AGFI       | RMSEA       | CFI        | NFI        |
|----------------|-------------|------------|------------|-------------|------------|------------|
| Optical model  | $\leq 3$    | $\geq 0.9$ | $\geq 0.9$ | $\leq 0.05$ | $\geq 0.9$ | $\geq 0.9$ |
| Modified model | 1.093       | .992       | .968       | .021        | .998       | .983       |

3.5 모형의 효과분석

Fig. 2, Table 5와 같이 기초간호학만족도는 전공만족도( $\beta=.345, p=.015$ )에 직접효과가 있고, 전공간호학만족도는 비판적사고성향( $\beta=.272, p=.009$ ), 전공만족도( $\be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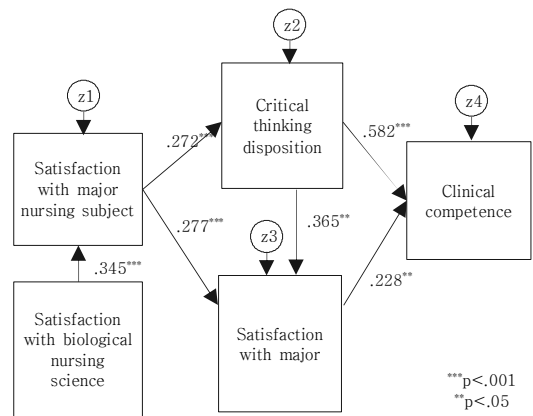


Fig. 2. Path analysis for the model

Table 5.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and total effect in path model

| Path   | Direct effect (p)   | Indirect effect (p) | Total effect (p) |
|--|---------------------|---------------------|------------------|
| Satisfaction with biological nursing science → Satisfaction with major nursing subject | .345<br>(.015)      |                     | .345<br>(.015)   |
| Satisfaction with biological nursing science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                     | .094<br>(.014)      | .094<br>(.014)   |
| Satisfaction with biological nursing science → Satisfaction with major                 |                     | .130<br>(.012)      | .130<br>(.012)   |
| Satisfaction with biological nursing science → Clinical competence                     |                     | .084<br>(.013)      | .084<br>(.013)   |
| Satisfaction with major nursing subject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 .272<br>(.009)      |                     | .272<br>(.009)   |
| Satisfaction with major nursing subject → Satisfaction with major                      | .277<br>( $<.001$ ) | .099<br>(.012)      | .376<br>(.030)   |
| Satisfaction with major nursing subject → Clinical competence                          |                     | .244<br>(.020)      | .244<br>(.020)   |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 Satisfaction with major                                | .365<br>(.026)      |                     | .365<br>(.026)   |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 Clinical competence                                    | .582<br>( $<.001$ ) | .083<br>(.012)      | .665<br>(.028)   |
| Satisfaction with major → Clinical competence  | .228<br>(.012)      |                     | .228<br>(.012)   |

=.277,  $p<.001$ )에 직접효과가 있으며, 비판적사고성향은 전공만족도( $\beta=.365$ ,  $p=.026$ )와 임상수행능력( $\beta=.582$ ,  $p<.001$ )에 직접 효과가 있고, 전공만족도는 임상수행능력( $\beta=.228$ ,  $p=.012$ )에 직접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Table 5와 같이 기초간호학만족도는 비판적사고성향( $\beta=.094$ ,  $p=.014$ ), 전공만족도( $\beta=.130$ ,  $p=.012$ ), 임상수행능력( $\beta=.084$ ,  $p=.013$ )에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전공간호학만족도는 전공만족도( $\beta=.099$ ,  $p=.012$ )와 임상수행능력( $\beta=.244$ ,  $p=.020$ )에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비판적사고성향은 임상수행능력( $\beta=.083$ ,  $p=.012$ )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총효과는 비판적사고성향이 임상수행능력( $\beta=.665$ ,  $p=.028$ )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높았고, 전공간호학만족도가 전공만족도( $\beta=.376$ ,  $p=.030$ )에 미치는 순이었다.

#### 4. 논의

본 연구는 기초간호학만족도와 전공간호학만족도, 비판적사고성향,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직·간접효과를 파악함으로써 기초간호학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 학습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입학동기는 선행연구 결과[4,6]와 같이 높은 취업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자들의 취업률이 저조한 상황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사회문제가 아니므로 적성이나 고교 교육과정을 고려하지 않

고 간호학 입학을 선택하는 현상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초간호학 학습 관련한 어려움도 지속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기초간호학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간호학과 입학 후 과학 교과목 학습여부를 파악하여 정규 외 교육과정으로 생명과학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기초간호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전략도 대안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기초간호학만족도는 3.88점, 전공간호학만족도는 4.05점이었다. 기초간호학만족도 연구가 부족하여 직접적 비교는 어려우나, 임상간호사들의 기초간호학 과목별 만족도 중 가장 높았던 생리학의 3.10점보다 높게 나타났다[17]. 간호대학생들보다 임상간호사들의 기초간호학 만족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교육현장에서 간호대학생들은 기초간호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수업이나 실습을 통해 인지는 하고 있으나, 간호사 국가시험에 독립된 교과목으로 포함되고 있지 않아 전공간호학을 위해 학습이 필요한 정도로 인식하고 있어 불만족보다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임상간호사들은 임상에서 업무를 통해 기초간호학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하고 있으나[17], 실제로는 기초간호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실무 수행 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어[18],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중환자실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기초간호학 각 교과목의 해부, 생리, 병리 등 각각의 지식보다는 질환과 관련된 사례중심의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19]. 간호사로 업

무를 하면서 기초간호학의 중요성을 깨닫고 부족함을 느끼면서 힘들어하기 전에 학교에서 이론교육과 실습을 통해 간호학 교수들이 지속적으로 기초간호학에 대한 중요성과 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학습동기의 자극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기초간호학은 다른 전공간호학 교과목처럼 책임교수가 없고, 이로 인해 전공교과목처럼 체계적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전공간호학만큼 기초간호학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기초간호학회가 설립되고 기초간호학의 중요성 인식이 향상되면서, 2010년 이후부터 연구의 수도 증가하고 있고[20], 임상과 교육현장에서의 인식의 차이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호사들이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필요로 하는 기초간호학 분야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 기초간호학 교육과정 마련과 이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기초간호학만족도는 전공간호학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간호학 성적이 학업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맥락임을 알 수 있다[6]. 간호대학생들은 입학 직후부터 기초간호학을 시작으로 전공간호학으로 이어지는 수업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큰 편이고, 이로 인해 다른 전공학과 학생들보다 학업적응이 낮은 편이다[21]. 따라서 기초간호학만족도를 향상시켜 전공간호학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뿐만 아니라 학업적응까지 도와주는 방법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전공간호학만족도는 4.05점으로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Lim[4]의 교과목표 및 교과목의 구성내용 등에 대한 교과만족도 2.98점, Kim과 Oh[22]의 3.14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교육인증평가 등으로 각 대학에서 성과기반 교육과정 마련 및 다양한 교수법 활용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지속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 마련과 끈임 없는 연구가 필요하다.

전공간호학만족도의 향상은 비판적사고성향을 향상시키는 직접효과가 있고, 기초간호학만족도는 전공만족도를 향상시켜 비판적사고성향을 향상시키는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비판적사고성향은 3.60점으로 Kim 등[23]의 3.60점과 비슷한 결과이다. 임상간호에서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습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실무 중에서 의미 있는 자료를 찾아내어, 문제를 규명하고 간호과정을 이끌어

내야 하므로 비판적사고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미국도 간호학과 인증평가기준에 비판적사고를 포함하였고[24], 국내에서도 주입식 강의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수법들을 활용하여 비판적사고를 함양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다. Son과 Song[25]은 전공간호학에 PBL을 적용하여 비판적사고를 향상시켰다. 그러나 교수학습방법에 따라 비판적사고성향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도 있다[26]. 이와 같이 전공간호학에서 비판적사고성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과 관련된 연구들은 다양하나, 기초간호학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기초간호학만족이 전공간호학만족을 향상시켜 비판적사고성향을 높이는 것이 확인되었기에, 이를 기반으로 기초간호학이 직접적으로 비판적사고성향을 향상시키는 것에 연구와 전략마련이 필요하다. 즉, 저학년 기초간호학 학습시부터 전공간호학까지 연계적으로 비판적사고성향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마련으로 간호대학생들을 학습시켜 나아간다면 실습시부터 이를 적극 활용하여 대상자의 문제를 찾아내고 간호를 적용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전공간호학만족도와 비판적사고성향이 향상되면 전공만족도도 향상되는 직접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기초간호학만족도는 전공간호학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또한 전공간호학만족도는 비판적사고성향을 매개로 하여 전공만족도를 높이는 간접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도가 3.75점으로 이는 비판적사고성향과 전공만족도가 순 상관관계를 보이며 전공만족도가 3.76점이었던 Kim과 Oh[22]의 결과와 비슷하다. 전공만족도는 학문, 사회적 인식, 교과내용과 관계만족 등 학과의 모든 측면에 대해 만족을 측정한 것으로 이를 향상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Lim[4], Kim과 Oh[22]의 결과에서 모두 적성과 흥미로 간호학을 선택한 경우에 전공만족도가 높았다. 취업 때문에 간호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들이 간호학에 만족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간호에 최선을 다하는 전문 간호인을 배출해내기 위해서는 간호학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록 끈임없는 노력과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간호학 강의 시 선행적으로 학생들의 학습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교수자들의 노력과 열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전공간호학은 이론교육과 임상실습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나, 기초간호학 교육은 이론수업과 모형실습 정도로 수업이 이루어지며, 일부 학과에서 인체구조와 기능에 편중된 해부학실습 건

학을 교과 외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도이다. 기초간호학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학습동기 유발을 위해서는 시대에 맞게 강의 위주의 수업보다 매체활용, 실습견학 등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과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공만족도와 비판적사고는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직접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임상수행능력은 3.60점으로 임상수행능력이 3.49점으로 비판적사고성향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던 Kim 등[23]의 결과와 임상수행능력과 전공만족도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던 Lee[27]의 결과와 유사하다. 많은 의료인들과 간호사, 보호자 등 임상이라는 낯선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 속에서 자신이 습득한 간호지식과 이론을 논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므로,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학생들의 혼란을 줄여주고 효율적인 실습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비판적사고성향과 전공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비판적사고성향과 전공만족도는 기초간호학만족과 전공간호학만족 향상에서부터 이어지므로, 가장 기본이 되는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에서부터 임상수행능력은 향상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기초간호학은 전공간호학의 근거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임상실무의 기반이 됨을 알 수 있으며, 임상현장에서 간호사의 기초간호학 지식이 환자 간호와 관련된 중요한 요인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들에서 감성지능[22], 자아탄력성[27], 문제해결능력[7]등 학생들의 내적요인이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인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교육현장에서의 기초간호학 및 전공간호학 교육이 임상수행능력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검증하므로써, 교육현장에서의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이 비판적사고성향과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궁극에는 임상수행능력 향상에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간호교육과정을 구성함에 있어서 기초간호학부터 시작하여 전공간호학까지 비판적사고성향 함양이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적용한다면, 비판적사고성향 함양과 동시에 전공만족도 향상을 가져오며, 임상실습으로 연계되어 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을 알 수 있다. 의학 발달에 발맞추어 간호교육도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공간호학 뿐만 아니라 기초간호학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율적 학습방법이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하는 바이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기초간호학만족도, 전공간호학만족도, 비판적사고성향,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 간의 인과관계와 경로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기초간호학만족도가 높으면 전공간호학만족도도 높고, 비판적사고성향이 높아지고, 동시에 전공만족도를 향상시켜 임상수행능력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급변하는 의료환경속에서 간호사는 여러 가지 임상문제에 직면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학교에서 배운 기초간호학 및 전공간호학 지식과 기술을 논리적으로 추론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내는 역량이 필요하다. 역량있는 간호사를 만들어 내기 위해 간호학과 입문 시 처음 접하는 기초간호학부터 비판적사고 중심의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임상수행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기초간호학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마련과 적용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일 지역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추후 대상자 확대를 통한 연구가 필요하며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한 기초간호학 학습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하는 바이다.

## REFERENCES

- [1] Korean Society of Biological Nursing Science. (2014). *Introduction to academic society*. Bionursing [Online]. [www.bionursing.or.kr/](http://www.bionursing.or.kr/)
- [2] H. S. Suh. (1995). An Analysis of Requisite Knowledge Body of Physiology for Nursing Education.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 Nursing*, 2(2), 229-237.
- [3] E. Rudy & P. Grady. (2005). Biological researchers: building nursing science. *Nursing Outlook*, 53(2), 88-94. <http://dx.doi.org/10.1016/j.outlook.2004.09.006>
- [4] J. H. Lim. (2014). Construction of a structural model about nursing students' academic motivation, ego-resilience, and satisfaction in major.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6(4), 2273-2284.
- [5] K. S. Lee, E. O. Choe & J. S. Chung. (2014). Survey of curriculum for 4 subjects (Structure and Function of human body, clinical microbiology, pathophysiology, & mechanism and effect of drugs) of biological nursing in undergraduate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16(1), 17-25.
- [6] I. S. Jung. (2017). Convergence research on the studying science subjects before entrance to nursing department, the score of basic nursing science and academic adjustmen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 8(9), 117-125.
- [7] S. H. Yang & I. O. Sim. (2016). Relationship between problem solving abilit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reativity, self efficacy and nursing process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5), 612-622.
- [8] H. J. Jang & Y. K. Kwag. (2013). Affecting factors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9), 4380-4387.
- [9] J. H. Lim. (2017). A convergence study on the path analysis of motivation toward learning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10), 323-332.
- [10] K. H. Kim & H. S. Ha. (2000).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1), 7-20.
- [11] G. S. Kim. (2007).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Seoul : Hannarae Publishing.
- [12] J. Yoon. (2004).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the measuremen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 in nursing*.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Seoul.
- [13] L. A. Braskamp, S. L. Wise & D. D. Hengstler. (1979). Student satisfaction as a measure of development quali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0, 349-361.
- [14] D. J. Kim & J. S. Lee. (2014).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elf-efficacy on satisfaction in major in nursing stud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2), 244-254.
- [15] W. H. Lee, C. J. Kim, J. S. Yoo, H. K. Hur, K. S. Kim & S. M. Lim. (1990). Development of a clinical competency measurement tool for student. *Yeonsei Nursing*, 13, 17-29.
- [16] M. S. Choi. (200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effectiveness of clinical nursing education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17] M. A. Choi, G. J. An & J. S. Jeong. (2012). A cororientation analysis of perception on bionursing between clinical nurses and nursing professors.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14(3), 212-220.
- [18] Davis. G. M. (2010). What is provided and what the registered nurse needs - bioscience learning through the pre-registration curriculum. *Nurse Education Today*. 30(8), 707-712.  
DOI : 10.1016/j.nedt.2010.01.008
- [19] Y. S. Byeon, M. A. Choe, H. S. Kim, M. J. Park, W. S. Seo, K. S. Lee, S. M. Choi & H. S. Hong. (2002). A study of content analysis on ICU(Intensive care unit) nurses knowledge of basic nursing sciences.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14(1), 41-49.
- [20] J. M. Park & K. H. Baek. (2018). The analysis of studies related to the learning methods of biological nursing subjects in Korea.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20(2), 92-102.
- [21] Y. K. Kwag. (2013). Effect of self-esteem,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5), 2178-2186.
- [22] Y. S. Kim & E. J. Oh. (2016).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critical thinking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7), 103-111.
- [23] I. S. Kim, Y. K. Jang, S. H. Park & S. H. Song. (201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3), 337-345.
- [24] Haffer. A. G & Raingruber. B. J. (1998). Discovering confidence in clinical reasoning and critical thinking development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7(2), 61-70.
- [25] Y. J. Son & Y. A. Song. (2012). Effects of simulation and problem-based learning courses in student critical thinking, problem solving abilities and learn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1), 43-52.
- [26] S. H. Yang, O. C. Lee, W. S. Lee, J. Yoon, C. S. Park & S. J. Lee. (2009). Critical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y in 3 nursing colleges with different education method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5(2), 149-158.
- [27] K. H. Lee. (2019). Convergence between ego-resilience, major satisfaction and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0(3), 297-306.

임 정 혜 (Jung-hye Lim)

[상위]



- 1999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
- 2009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5년 11월 ~ 현재 : 창원문성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학, 기본간호학, 간호교육, 노인간호학, 감염관리, 중앙환자간호

· E-Mail : bluejih22@naver.com